

고려인 뿌리 내린 우즈벡 사막서 의료봉사... “세계 오지 어디든 간다”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봉사활동

여수업체 등 참여 가스·화학 플랜트 공장 건설 현장 현지인·한국인 근로자 등 1500여명 무료 진료 받아

지난 2007년부터 지구촌 오지 무료진료를 통해 대한민국과 여수를 세계 속에 꾸준히 알리는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13번째 봉사에 나서 화제다.

지구촌 봉사단 23명이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 무료진료에 나선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오지인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쿤그라드 지역.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1300km 떨어진 사막이다. 하루 2번뿐인 비행기로 22일 저녁 인근 누쿠스 시 공항에 도착한 봉사단은 23일 베스로 2시간이 넘게 이동한 후에야 쿤그라드 보건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구촌 의료진들이 이날 본격적인 의료봉사를 시작하자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던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의료진은 산부인과(강병석, 이은희), 소아과(이동룡), 치과(오창주), 신경외과(심병수), 내과(정대호) 등 5개 과로 구성됐으며 약제실·검사실까지 갖춘 의료시스템을 구축, 수준 높은 진료로 주민들을 어루만졌다. 이번 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여수지역 대표기업 대신기공과 우주종합건설의 김철희, 김영태 대표가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현지 주민과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올 초부터 봉사단에 간곡히 요청해 성사됐다.

십씨 50도를 넘나드는 여름더위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날씨에 한지 앞을 분간하기 힘든 진흙 먼지 등 열악한 상황에도 한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로 어느덧 공정을 87%를 넘겼지만, 문제는 직원들의 건강이었다.

김완수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은 “여수지구촌 봉사단의 의료봉사 덕분에 현지민과 근로자 건강 뿐만 아니라 관할 정부와도 더욱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프로젝트 순항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먼 오지까지 찾아와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여준 봉사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구촌 소속 의료진은 23일 새벽부터 물러든 환자들을 위해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쉬없이 진료를 이어갔다. 27일까지 이어진 의료봉사 기간 동안 지구촌 봉사단이 진료한

주민들만 1500여명이 넘었지만 의료진은 물론, 봉사단원 누구도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현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랑 나눔에 모두 한마음이 된 것이다. 봉사단은 특히 뇌수종을 앓고 있는 두형제 중 비교적 더 나은 상태인 3살짜리 동생을 위한 무료 치료를 약속해 훈훈한 감동을 이어갔다. 수술을 위한 한국 체류비용 등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검사와 수술비 등 치료비 일체는 봉사단 강병석 회장 등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동룡(여수참조은 아동병원)원장은 “형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지만 동생은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봉사단이 찾은 카라칼팍스탄 지역은 고려인들의 한이 서린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된 17만여명의 고려인 중 상당수가 이곳 카라칼팍스탄 사막지역에 무방비로 버려졌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고려인들이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렸고 현재 5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척박한 땅에 고려인이 뿌리를 내린지 70여년만에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스투르트 가스·화학 플랜트(UGCC)공장을 짓고 있다. 공사비만 41억달러(약43000억원)로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다. 한국 건설사 3곳이 구역을 나눠 시공 중인 이곳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주력 협력업체로 여수지역 플랜트 공사업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 회원들과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을 찾은 심병수 신경외과 원장이 하지정맥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제6곳이 참여하고 있다.

동요르 카라칼팍스탄 보건복지부 국장은 “우리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멀리 대한민국에서 오셔서 찾아 준 봉사단에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7번째 목욕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의료봉사와 장학금 지원 등을 해오고 있는 ‘여수지구촌 사랑 나눔회’는 지난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 확정을 위해 여수시와 지역 의료진, 봉사단체 회원 등이 주축이 돼 첫 출범했다. 강병석 회장은

“봉사기간 병원 문을 닫는 등 손해도 야라 못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헌신해 준 의료진과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세계속에 대한민국 여수의 역할을 알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희기자 chkim@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녹조근정훈장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전남도청 예산과장 등을 지내는 등 15년간 예산부서에 근무하면서 ‘예산통’으로 불리기도 했던 허 전 부군수는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과 성실로 직무를 수행,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흥 ‘행복도우미’ 독거노인에 밀반찬 전달



장흥군(군수 김성) 장평면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우미 봉사대’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 40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20년간 국·내외 한센인에 ‘인술’ 소록도병원 오동찬씨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46)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조선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오 부장은 1995년 공중보건으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20년간 1600명의 한센인을 위해 인술을 펼쳐왔다.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4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입술 성형수술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매년 여름 휴가나 명절기간에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 한센병 환자가 많은 국가를 찾아 의료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오동찬 의료부장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는 점은



성천 이기적 사장의 생생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은 “소록도에서 한센인들과 즐겁게 살며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편견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소록도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영감을 돌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기적 사장의 생생존중 사상을 기리고 사회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8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고홍=주각중기자 gjiu@

남·북에 평화메시지... 지휘자 로린 마젤 타계

8살때 오케스트라 지휘 첼리스트 장한나와 협업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미국)이 13일(현지시간) 타계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미국 버지니아주 케슬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폐렴에 따른 합병증 증세로 사망했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다. 현대 클래식 음악을 이끈 거장 중 한 명인 마젤은 2006년 가까운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7000 차레가 넘는 연주회·오페라 공연을 지휘하며 음악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러시아 혈통의 유대인으로 1930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태어난 마젤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음악가 집안의 재능을 함몰에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성악을 공부하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할아버지는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20년간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했다. 그는 절대 음감과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네 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여덟 살에 아이다호 대학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아홉 살 때는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인터라켄 오케스트



라를 지휘해 ‘신동’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서른 살이 된 1960년에는 미국인 최초로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무대에 지휘자로 데뷔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생전에 수차례 내한해 공연했으며 첼리스트 장한나의 재능을 높이 사 어릴 때부터 국내외의 여러 무대에서 협업하고 지휘를 가르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뉴욕필 상임지휘자 시절인 2008년 2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이끌었다. 당시 평양 동맹대극장에서 북한과 미국 국가, ‘아리랑’ 등을 지휘했다.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연주한다는 비판에 맞서 뉴욕필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마젤은 평양 공연 리허설 직후 “북한 주민(North Korean)이 우리 연주를 보고 북미 사랑(North American)도 아름답고 예술을 사랑하며 송곳니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방

▲김홍균 광주동부경찰서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계현·김경숙씨 차남 영주군 김경순씨 장녀 박현정양=19일(토) 오전11시 30분 메종 드 보네르(구,꿈의공전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15(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장원구) 운영위원회 회의=18일(금) 오후 6시 30분 진주 강씨 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알림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기쁨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승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

363-0442~3.

모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연 062-512-5788, 062-262-154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014년도 7~9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3개월 3만원(월~목) 수시접수 062-951-9461.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건,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가장

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부음

▲김용균씨 별세 명진(동신대학교)·애란·활란씨 부친상=발인 15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 최경진 님(남/92세) 子/子婦: 최재훈/우순례, 최민호 女/婿: 최재숙, 최태임/최민주, 최경숙 *발 인: 7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102호 故 박복실 님(여/85세) 子/子婦: 기정환/양종연 女/婿: 기정희/차선영 未故人: 나선자 *발 인: 7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401호 故 김관규 님(남/78세) 子/子婦: 김성진/이인숙, 김종희/김금란, 김이홍/사인숙 女/婿: 김경숙/이영우, 김경순/신승훈, 김경란/이동영 未故人: 김영남 *발 인: 7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 박수식 님(여/74세) 子/子婦: 최성욱/조희영, 최승진 女/婿: 최현아/신종철, 최희정/문승기 未故人: 김영남 *발 인: 7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